

절망 속에서도 별을 그린 화가 고흐를 만난다

반 고흐 회고전이 지난달 29일 예술의 전당에서 개막했다. 이종우 기자



Cover Story 반 고흐 회고전 인기...MZ세대 핫플로 떠오른 미술관



씨 뿌리는 사람.

“고흐의 붓질과 강렬한 색채가 주는 감동은 사진이나 영상으로는 느낄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원화를 보러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달 29일부터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열리고 있는 ‘불멸의 화가 반 고흐’ 전시회에는 첫날부터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전시는 고흐가 화가로 살았던 삶의 마지막 10년의 작품들을 연대기 순으로 구성했습니다. 화가의 길을 걷기 시작한 ‘네덜란드 시기’(1881~1885)를 시작으로 인상파의 강렬한 색채로부터 영감을 받았던 ‘파리 시기’(1886~1888), 남프랑스의 작은 도시 아를에 머물며 인물화·풍경화의 색채 실험을 거듭하던 ‘아를 시기’(1888~1889), 자연의 위대함을 경험하며 정신병원 생활을 했던 ‘생레미 시기’(1889~1890), 고향에 대한 향수에 젖은 채 생을 마감한 ‘오베르쉬르우아즈 시기’(1890)까지 총 5개 테마를 따라 걷다 보면 삶과 예술에 대한 고흐의 열정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고흐는 ‘해바라기’ ‘별이 빛나는 밤’ 등 밝고 따뜻한 색채를 특징으로 하는 아름다운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하지만 실제 고흐의 삶은 고단하고 비극적이었습니다. 사랑에 실패해 결혼을 하

지 못했고, 아이도 갖지 못했습니다. 친구도 많지 않았죠. 살아생전 딱 한 점의 그림밖에 팔지 못해 동생 테오가 보내주는 돈으로 생활해야 했습니다. 고독하고 힘든 삶 가운데서도 고흐는 인류애와 인간의 진실된 모습을 담기 위해 애썼고 그의 작품은 오늘날 ‘아주 보통의 하루’를 살아가려는 현대인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최근 젊은 세대 사이에서 미술관과 전시회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국립현대미술관의 방문객 320만명 중 MZ세대가 차지한 비율은 무려 65%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미술관을 찾은 이들은 천천히 예술 작품을 둘러보며 바쁜 일상 속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모습입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5’에서 김난도 서울대 교수는 ‘아보하’가 내년 주요 트렌드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보하’는 ‘아주 보통의 하루’의 줄임말로, 특별한 성취나 과시 없이도 평범한 일상 속에서 평온함을 찾으려는 삶의 태도를 뜻합니다. 젊은 세대는 경쟁과 강한 자극에 지쳐 여유로운 삶과 건강한 도파민 추구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김혜순 기자·김민성 인턴기자

틴매경도 겨울방학...내년 3월에 다시 만나요

2024년 하반기 틴매일경제신문 마지막 호가 발간됐습니다. 틴매경 신문은 오는 3월 더욱 풍성한 콘텐츠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틴매경은 청소년들을 위한 시사·경제 이슈를 비롯해 다양한 교육 콘텐츠가 실려 있습니다. 틴매경의 콘텐츠

는 홈페이지(teen.mk.co.kr)에서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매일경제 경제경영연구소가 운영하는 경제경영 학습 유튜브 채널 ‘매테나’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매경테스트 취업스쿨’ 등에서 추가 교육 콘텐츠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생일선물, 당당하게 원하면 든든하게 모인다



소곤소곤
우리들 이야기



MZ세대 사이에서 펀딩을 통해 원하는 제품을 선물하는 것이 유행하고 있다. 생일 펀딩 플랫폼 프레제뉴의 사진.
프레제뉴 홈페이지 캡처



게티이미지뱅크

SNS에 올린 '희망선물' 친구들이 돈 모아 건네 선물 고르는 고민 해결 받는 사람 만족감도 커

쓰레기 줄여 친환경적 기부펀딩으로 확산도

“생일선물로 치킨 기프트콘은 이제 그만.” “펀딩으로 원하는 선물 주고받는 게 유행이에요.”

최근 Z세대 사이에서 생일 선물 문화가 변하고 있습니다. 생일을 맞은 사람이 선물로 받고싶은 제품을 펀딩 플랫폼에 올린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면, 친구들이 일정 금액씩 돈을 모금해 해당 제품을 선물하는 '기프트 펀딩(Gift Funding)'이 늘고 있는데요. 기프트 펀딩을 활용하면 선물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뭘 골라야 할지' 고민을 줄일 수 있고 받는 사람도 평소 사지 못하던 고가의 제품을 살 수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기프트 펀딩은 클라우드 펀딩의 원리에서 기인합니다. 클라우드 펀딩이란 펀딩의 한 종류로, 창의적 아이템을 가진 초기 기업가가 자금 수요를 위해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기프트 펀딩은 이 원리에 착안해 생일자가 갖고 싶은 선물을 사기 위해 '다수'의 지인들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형식으로 이루어 집니다. 펀딩 플랫폼을 통해 축하금을 결제하면 그 금액이 쌓여 생일자가 원하는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Z세대는 소비에 있어 실용성과 사회적 가치를 중시합니다. 기존에는 생일 선물을 주고받을 때 카카오톡 위시리스트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카카오톡에 자신이 원하는 선물을 등록하면, 지인들은 '무슨 선물을 해주어야 하지?' 하는 고민 없이 생일자의 위시리스트에서 하나씩 골라 선물합니다. 이는 필요한 선물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한편으론 너무 비싼 제품들은 선물하기 부담스럽고 모든 선물이 각각 택배로 오는 탓에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기프트 펀딩 방식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어 실용

적이고 친환경적인 선물 문화로 호평받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모금액을 더해 평소 사지 못했던 에어팟이나 카메라 같은 고가의 제품을 선물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대포장으로 나오는 쓰레기 역시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펀딩 플랫폼 이용자 김연진 씨(18)는 “여러 배송 상품에서 나오는 쓰레기와 방 안 공간을 차지하는 불필요한 선물들을 줄여보고자 기프트 펀딩을 실시했고, 기대보다 더 만족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기업들 역시 기프트 펀딩 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Z세대의 특성과 펀딩의 장점을 활용한 '삼성 기프트 펀딩'으로 올 들어 1만건 이상 판매 실적을 거뒀는데요. '삼성 기프트 펀딩'이란 기념일에 삼성닷컴 내에서 원하는 제품을 선택해 펀딩 링크를 공유하면, 지인들이 원하는 만큼 펀딩에 참여해 기업 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이벤트입니다. Z세대를 사로잡기 위해 인기 웹툰 '치즈인더트랩' '잔왕루피' '뽕뽕이' 등의 캐릭터와 협업까지 진행하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생일 펀딩은 단순히 원하는 선물을 주고받는 것을 넘어 특정 사회단체를 후원하거나 사회취약계층을 후원하는 '기부 펀딩'으로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기부 펀딩 수요가 늘어나면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같이하는 기념기부' 캠페인을 통해 생일, 결혼, 입학 등 다양한 기념일에 후원금 모금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생일 기부 펀딩을 진행한 김 모양은 “주위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후원을 고민해왔는데 생일 펀딩을 계기로 쉽게 시작하게 됐다”며 “생일 축하 마음을 전하는 것과 함께 좋은 일도 한다고 하니 펀딩에 참여한 가족들과 친구들의 반응도 좋았다”고 밝혔습니다. 장해린 인턴기자

경제공부 필수품은-오프라인 서점서 만나세요



회장 발행·편집·인쇄인 장승준

등록번호 : 서울.다50736 발행간격 : 격주간 발행소 : 04627 서울 중구 퇴계로 190 매경미디어센터

경제경영연구소 이메일 구독 문의 광고 문의

teen@mk.co.kr (02) 2000-2383 (02) 2000-2200

尹대통령 탄핵안 가결...헌정사 세 번째 탄핵소추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홍우기자

尹대통령 탄핵안 가결...찬성 204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 중 파면되는 두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됩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습니다.

탄핵안 통과를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

▶NIE 준비하기

1.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이유와 법적 근거에 대해 조사해봅시다.
2. 탄핵소추안 가결이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한 지 11일 만입니다. 지난 7일 1차 탄핵안 투표에서는 국민의힘이 집단으로 표결에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전원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매일경제 12월 15·16일 A1면 보도



꼭 알아야 할 최신 뉴스

대기업 CFO 67% “내년 자금난 악화”

대기업 10곳 중 7곳이 내년 자금 사정이 올해보다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경영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매일경제 '레이더M'이 주요 대기업 CFO와 재무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7.3%가 내년 자금 상황이 나빠질 것이라고 답했으며 주요 원인으로 경기 침체(97.2%)를 꼽았습니다. 또한 환율(26.5%), 고금리(20.4%), 물가 상승(10.2%) 등의 요인도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내년 자금 운용의 우선 과제로 비용 절감(46.9%)과 디레버리징(빚 줄이기·40.8%)을 선택하며, 불확실한 경영 환경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

▶NIE 준비하기

1. 환율이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2. 경기 침체에도 기업들이 성장을 하기 위해 투자할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는 무엇이 있을지 분석해봅시다.

치 불안과 금융시장 변동성으로 인해 환율의 영향을 받는 기업들은 내년 상반기까지만 계획을 세운 채 이후 전망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업들은 허리를 졸라매면서도 신성장 동력을 찾으려는 의지를 나타내며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일경제 12월 10일 A1면 보도



204표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에서 찬성표 수

67.3%

내년이 더 힘들 것이라 예상한 대기업 비율

1조3101억弗

지난 12일 기준 테슬라의 시가총액

美나스닥 2만선 첫 돌파

미국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초로 2만을 돌파했습니다. 빅테크 기업은 물론이고 정보기술(IT) 기업 전반이 초강세입니다.

11일(현지시간) 나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77% 급등한 2만34.9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2020년 7월 처음으로 1만을 돌파한 이후 약 4년 반 만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35.68% 오르며 미국 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주요 테크 기업들이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테슬라가 5.93% 치솟으며 424.77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NIE 준비하기

1. 테슬라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배경에 대해 조사해봅시다.
2. 게임 사태 이후 한국 증시를 부양하기 위한 한국은행의 대책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알파벳(구글)도 5.46% 급등하며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한편 한국 증시에서 코스피는 개인과 외국인 순매도에도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 전날보다 1.62% 상승한 2482.12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매일경제 12월 12일 A1면 보도



#미술관데이트 #고흐전...미술관은 인증샷 맛집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고흐 회고전 '불멸의 화가 반 고흐, THE GREAT PASSION'을 찾는 관객들. 최근 MZ세대 사이에선 미술관이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이홍우 기자

영화관 관객 급감할 때
미술관은 핫플레이스로

수동적인 관객 벗어나
직접 체험 중요히 여겨
인스타 인증샷에도 딱

XR 신기술 활용 등
미술관 갈수록 진화

“전시회가 인스타그램어블(instagramable)’ 해서 영화관보다 더 자주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영화관 데이트? 이제는 미술관 데이트가 대세

최근 MZ세대의 문화 소비 트렌드가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데이트 코스로 영화관보다는 전시회나 미술관을 더 자주 찾는 모습인데요. 영화관은 한때 가장 인기 있는 데이트 코스였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그 인기가 점점 시들해지고 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 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2023년 3분기까지 누적 관객 수는 약 9400만명으로 같은 기간 대비 45%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최근 인스타그램에서 ‘미술관데이트’라는 해시태그가 포함된 포스트는 무려 7만7000건에 달하며, MZ세대의 전시회 방문 트렌드가 급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취향 차이를 넘어 새로운 문화 소비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시회 붐은 ‘트렌드 코리아 2025’에 등장한 ‘몰성매력’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몰성매력이란 디지털 콘텐츠와 달리 실제로 보고 느끼는 경험이 주는 독특한 매력을 뜻합니다.

적극적인 문화 소비를 추구하는 MZ세대

MZ세대는 단순 소비자 수동적 경험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만의 취향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활동을 선호합니다. 전시회와 미술관 방문은 시청각적 경험을 넘어 감성과 사고를 자극합니다. 특히 고유한 미적 경험과 개인적 해석을 통해 예술 작품을 즐기고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입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과 유튜브 등 디지털 콘텐츠가 넘쳐나는 시대에 MZ세대는 화면을 넘어 실제 공간과 작품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감동과 만족감을 중시합니다. 디지털 매체로는 담을 수 없는 작품의 질감, 크기, 디테일이 주는 감각적 경험은 전시회 방문을 더욱 특별하게 만듭니다.

‘인스타그램어블’한 공간의 대명사

전시회는 소위 ‘인스타그램어블’한 장소로 인식됩니다. 독특한 전시 공간과 작품은 사진 찍기에 최적화되어 소셜미디어에서 주목받기 좋은 ‘핫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전시회는 관람자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릴 사진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공간과 작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MZ세대는 이런 공간을 활용해 자신의 취향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합니다.

개인화된 경험도 전시회 방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영화관은 대개 정해진 스크린과 상영 시간을 따라야 하지만, 전시회는 관람자의 속도와 관심에 맞춰 작품을 천천히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영화는 대부분 시청각적 몰입을 위해 제작되며, 관람 후에는 비교적 제한된 여운이 남습니다. 반면, 전시회는 공간 전체를 즐기고 작품을 각기 다른 각도로 바라보며 깊이 있는 체험을 제공합니다. 같은 작품을 여러 번 보면서 새로운 관점을 발견할 수 있는 점도 전시회의 큰 장점입니다.

‘미술관 붐’ 앞으로도 이어질 듯

미술관이 MZ세대의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들을 유치하기 위한 방식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상호 작용과 게임화 전략이 대표적입니다. 게임 요소나 가상 미술관, 몰입형 체험은 1020세대의 참여를 유도하고 더욱 즐거운 미술관 경험을 제공합니다. 확장현실(XR)과 같은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전시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MZ세대는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갈망이 크고 자신만의 감성과 경험을 SNS를 통해 공유하고 싶어합니다. 전시회는 이러한 니즈를 충족시키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앞으로 미술관은 더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경계를 넘나드는 혼합형 콘텐츠를 선보일 전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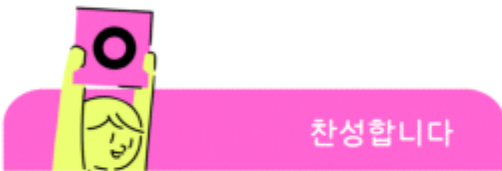
김도연 인턴기자



“학령인구 줄어 교육책” vs “여대설립 이념 훼손돼”

남녀공학 전환 동덕여대 사태

동덕여대의 ‘남녀공학 전환 논의’가 많은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남녀공학 전환’은 대학 혁신을 목표로 출범한 대학비전혁신추진단 회의에서 단과대학 발전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됐지만 이후 학생들에게 알려지면서 거센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학교 측은 “공학 전환은 학교 발전을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을 뿐,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총학생회는 “동덕여대의 정체성을 흔들 수 있는 공학 전환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이후 학생들은 반대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학교 곳곳에는 ‘공학 전환 반대’를 외치는 근조화환이 설치되고, 대자보와 연대 서명 등 학내 시위가 이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찬성합니다



이의있어요

▶ 대학·학생 경쟁력 높일 방안

여자대학교의 ‘남녀공학 전환’은 학생 수 감소 등의 이유로 꾸준히 논의되어 온 주제입니다. 동덕여대에서도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5년 이원복 전 총장이 “성별을 초월한 경쟁이 요구되는 시대가 도래했다”며 남녀공학 전환을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큰 변화 없이 논의는 중단되었습니다.

동덕여대 관계자는 “2030년까지 학교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 중으로 공학 전환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됐다”며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학과 개편을 통해 미래지향적 전공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녀공학 전환은 학교와 학생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학과 개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시작된 논의라는 설명입니다.

▶ 여대 존재 필요성 줄어들어

과거에는 여대가 여성들에게 교육 기회를 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남녀 간 교육 기회 차이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지금의 여대는 필요성과 명분이 퇴색된 채 남성과 여성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구조의 산물로 남아 있습니다. 특정 성별만을 위한 교육 환경은 오히려 성별에 따른 사회적 역할을 기대하거나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성들을 남성 범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 여대라는 울타리에 머물게 하겠다는 논리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대가 물리적 분리를 강조함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가정생활에서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기보다는 더 강화할 위험도 있습니다.

▶ 학생들과 논의 과정 생략돼

여대는 여성들이 차별과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목소리를 내고 공부할 수 있는 ‘해방의 장소’로 발전해왔습니다. 최현아 동덕여대 총학생회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동덕여대는 여성의 교육권을 확대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라며 “학교의 설립 이념에 반하는 남녀공학 전환은 논의조차 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학생들과의 논의가 생략된 학교의 일방적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한 재학생은 “우리는 동덕여대로 알고 입학했는데, 왜 논의도 없이 전환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상성에 입사했는데 갑자기 회사 이름을 사오미로 바꾸는 것과 같은 충격”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 성차별·성폭력 불안감 커져

학생들이 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성범죄 발생 우려입니다. 특히 2018년에 발생한 ‘알몸남 사건’이 주요 근거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한 20대 남성이 동덕여대 대학원 건물에 침입해 강의실과 여자 화장실 입구에서 음란 행위를 하고 이를 촬영해 SNS에 유포한 사건입니다. 이후 여대를 겨냥한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고, 대학은 학생들의 요구로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동덕여대 한 재학생은 최근 서울대생들의 답페이크 사건을 언급하며 “여학생들에게 여대는 아무 데서나 자도 안전하다는 확신이 드는 공간”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여대는 여성이 주체가 되어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자 성폭력과 성차별이 여전한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공간입니다. 박세윤 인턴기자



1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현실적 대안은.

2

공학 전환 시 발생할 안전 문제.

3

한국 사회에 성평등은 이루어지고 있다.

드라마는 왜 꼭 중요한 장면에서 끝낼까?

Q.

매주 1~2회씩 연재되는 드라마, 웹툰, 웹소설의 공통점이 뭘까요? 새로운 사건이 막 시작되려고 하거나,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려는 찰나 끝나지 않나요? 궁금해서 일주일을 기다리기 힘들게 만들죠. 저도 드라마를 한창 보다가 갑자기 마지막 장면과 함께 주제곡이 나올 때면, 약이 오르더라고요. 어찌 딱 저기서 끊어버리나 싶어서요. 다음 화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해서 관련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죠. 연재 중인 웹툰엔 '완결되고 불결. 괜히 지금 봤네. 일주일 어떻게 참지?'라는 댓글들도 달리곤 하더라고요. 드라마도 마찬가지죠. 왜 이런 전략을 쓰는 것일까요?



김나영 선생님의
쉬운 경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한 장면.

넷플릭스

A. OTT에 올라와 있는 완결된 드라마 리뷰에는 '궁금해서 이틀 밤새 정주행했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저도 매 회차 끝날 때마다 궁금해서 밤새 몰아서 보고는 학교 가서 졸았던 경험도 있답니다. 그래서요! 저는 웬만하면 드라마를 안 봐요. 한 회차 보면 계속 보고 싶어지는 그 마음 때문에, 한 편으로 끝나는 영화를 선호하답니다. 궁금하면 못 참는 저 같은 성향인 친구들은 길게 연재·연속되는 드라마나 웹툰은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게 생활 흐름을 깨뜨리지 않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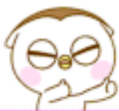
사람들은 완료된 일보다 끝이 안 난 일을 더 잘 기억하는 성향이 있어요. 연재되는 웹툰을 보는 중에는 세부적인 에피소드들이 잘 기억나는데, 완결된 웹툰의 엔딩을 보고 나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금세 잊어버린 경험 있지 않나요?

러시아 심리학자 블루마 자이가르닉(Bluma Zeigarnik)은 이와 관련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 감기, 종이접기, 구슬 꿰기, 퍼즐 등의 활동을 할 사람들을 모집했어요. 열심히 실 감기 활동을 하는 중간에 끼어들어 그만두게 하고 다음 활동인 종이접기로 넘어가게 했어요. 종이접기는 모두 마친 후, 구슬 꿰기를 하게 했죠. 구슬 꿰기를 하고 있는 중간에 끼어들어 퍼즐을 하게 한 후 퍼즐은 끝까지 마쳤어요. 실험을 마치고, 사람들에게 활동들을 떠올려보라고 했어요. 도중에 멈추고 넘어갔던 실 감기, 구슬 꿰기를 끝까지 완료한 종이접기와 퍼즐보다 2배가량 더 많이 기억했어요. 놀랍지 않나요? 완료되지 않고 중간에 끊어져서 찝찝한 상태일 때 더 궁금증이 생기고, 기억도

더 잘하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을 심리학자 이름을 따서 '자이가르닉 효과(Zeigarnik Effect)'라고 불러요. '미완성 효과'라고도 하죠. 이 효과는 광고에서 활용됩니다. 결론이 나지 않은 광고가 사람들의 뇌리에 오래 박혀 있다고 해서 중간에 끊어버린 듯한 광고를 만드는 겁니다.

누군가가 말을 하려다 말아버리면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했지?' 하고 더 궁금했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 효과는 우리가 공부하고 과제를 할 때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제출 마감일이 있는 과제, 하고 싶지 않아서 미루게 되는 그 과제. 빨리 끝내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한 번에 모두 끝내려고 마음먹고 앉으려고 하면 잘되지 않아요. 그런 부담 없이 '그냥' 시작하는 겁니다. 책상에 앉아서 10분만, 아주 조금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일단 과제를 시작하고 나면, 자이가르닉 효과에 따라 그 과제의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 거예요. 자꾸 그 과제가 떠오르게 되니, 어느새 책상에 앉아 과제를 이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너무 욕심을 내서 여러 과제를 한 번에 짚금짚금 시작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자이가르닉 효과를 이용해서 과제를 일련 끝내는 전략은, 완료하지 못한 과제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 열 가지 일을 동시에 시작해두면, 자이가르닉 효과로 인한 불편함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스트레스만 될 수 있어요. 하기 싫은 과제가 많으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씩 순서대로 일단 시작해 보세요!

서울 양정중학교 교사, 실험경제반 운영



자이가르닉효과

연재 웹툰의 마지막 장면이 머릿속에 맴돌며 다음 회차가 기다려져요. 중간에 끊어지면 더 궁금하고, 기억도 더 잘하는 자이가르닉 효과 때문이죠. 하기 싫은 숙제라도 일단 시작해 보세요! 자꾸 머릿속에 맴돌아서 스스로를 이끌어갈 거예요!

농부들의 동반자...농협의 역사를 아시나요

1. 농협, 농촌과 농부를 위한 든든한 파트너

우리가 매일 먹는 쌀, 채소, 과일은 모두 농부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다. 하지만 농부들이 농사를 짓고 키운 농산물을 팔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 바로 농협(농업협동조합)이다. 농협은 농부와 농촌의 친구이자 파트너로서, 우리 모두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 농협의 탄생: 왜 필요했을까?

1961년, 농협이 만들어지던 시절 한국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한국 전쟁 이후 농촌은 논밭이 망가지고, 농사를 지을 자재도 부족했으며, 농부들이 키운 농산물을 팔 곳조차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농부들이 혼자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농부들이 서로 협력해 농사를 더 잘 짓고, 경제적으로도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조직이 필요했다. 그 결과 농협이 탄생하게 됐고, 오늘날까지 농업과 농촌을 지키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3. 농협의 역할

농사에 필요한 것들을 지원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씨앗, 비료, 농기계 같은 자재가 필요하다. 농협은 이를 안정적으로 제공해 농부들이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돕는다. 농부가 "올해 비료가 부족해요"라고 하면, 농협은 "제가 가져다드릴게요!"라고 말하며 문제를 해결해 준다. 또한 농협은 새로운 농업 기술과 정보를 제공해 농부들이 더 효율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돕는다.

농산물 판로 확보·유통 지원

농부들이 애써 키운 농산물을 시장에 내다팔기는 쉽지 않다. 농협은 농산물을 대신 팔아주고, 더 나아가 마트나 해외로 유통되도록 돕는다.

"쌀을 전국 마트에 보내드릴게요." "사과를 외국에도 수출해볼게요."

농협 덕분에 농부들은 재값을 받고 농산물을 팔 수 있고, 소비자들도 신선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농가에 대한 금융 지원

농사를 짓다가 돈이 필요할 때, 농협은 농부들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역할도 한다. 농부가 "이번에 트랙터를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해요"라고 하면, 농협은 "제가 빌려드릴게요. 천천히 갚으셔도 됩니다"라고 하며 도움을 준다. 농협은 은행처럼 농부들의 돈을 맡아주기도 하고 적금과 같은 금융상품 가입을 통해 농촌 주민들의 경제적 안정에도 기여한다.

농촌 복지와 생활 지원

농협은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병원을 찾아가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이동 건강검진이나 문화공연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촌 마을을 더 활기차게 만들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 지원활동을 한다. 길, 집, 학교 같은 생활시설도 더 나아지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런 노력 덕분에 농촌에서 더 편안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김형리의
금융의 역사

모두를 위한 금융 서비스

은행이 멀어서 못 가는 사람들도 핀테크 앱만 있으면 스마트폰으로 송금하고 돈을 관리할 수 있다. 시골에 살고 있어서 은행이 없다면, 핀테크 앱을 사용해서 쉽게 돈을 보낼 수 있다.

농업의 지속 가능성 유지

농협은 농촌 경제를 안정시키고 농업을 발전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농부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돕고 그 결과 우리 소비자들이 신선하고 질 좋은 농산물을 계속 소비할 수 있게 한다.

농협은 단순히 농부들을 돕는 조직이 아니다. 농업이 안정돼 우리나라의 식량이 부족해지지 않고, 농촌이 발전해야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 농협은 농업과 농촌을 지키고 발전시키며 궁극적으로 우리가 매일 소비하는 먹거리를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다.

농협은 지난 수십 년간 농부들과 함께하며 농업과 농촌을 발전시켜 왔다. 앞으로도 농업 환경과 기술이 변화하는 가운데 농협은 농부와 농촌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역할을 계속할 것이다. 농협은 농부를 돕는 친구이자, 우리 사회 전체를 지키는 중요한 파트너이다. 이러한 노력은 결국 농촌의 행복과 우리 모두의 건강한 미래로 이어질 것이다.

NH농협은행 퇴직연금고객관리센터



시사용어 CHECK

농업
인간이 식량과 원자재를 얻기 위해 작물 재배와 가축 사육을 하는 경제 활동. 자연환경을 활용해 우리의 생존과 생활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산업이다.

“능력 있어도 6두품은 안돼” 신라 멸망 부른 골품제

…… 친구와 술을 마시던 설계두가 말하기를, “신라에서는 사람을 등용하는 데 골품을 논한다. 진실로 그 족속이 아니면 비록 큰 재주와 뛰어난 공이 있어도 뛰어넘을 수 없다. 나는 원컨대 중국으로 건너가 세상에 드문 지략을 떨치고 특별한 공을 세워 스스로 영광스러운 관직에 올라 고관대적의 옷을 입고 천자의 곁에 있겠다.”라고 하였다.…… ‘삼국사기’



조인 강사의
한국사 탐방

신라 6두품이었던 설계두는 당나라로 건너가 당 태종의 장군이 되어 고구려 원정에 참여하였다. 그가 말한 신라의 폐쇄적인 신분제도는 ‘골품제도’이다. 골품제도는 왜 신라의 멸망 원인이 되었을까?

골품제도는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신라의 신분제 ‘골품(骨品)제도’는 골제(骨制)와 두품제(頭品制)가 합쳐진 것입니다. 골제는 성골과 진골 등 양쪽을 의미하며, 두품제는 6두품에서 1두품에 이르는 지배층을 말하는 것이다. 훗날 두품의 수가 늘어나면서 3두품에서 1두품은 사실상 일반 백성들과 비슷하게 여겨지게 됩니다. 진덕여왕을 마지막으로 성골 출신의 왕의 대가 끊어지면서, 태종무열왕(김춘추) 이후 신라의 왕들은 모두 진골 출신이었습니다. 진골은 사실상 신라를 처음 세웠던 박씨, 석씨, 김씨 등 왕족의 후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두품은 왜 등장할까요? 신라는 영토를 확장해 나가면서 다른 정치집단을 자신의 지배체제 안으로 흡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신라는 각 집단의 세력 크기에 따라 6두품, 5두품, 4두품 등을 부여했던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금관가야’라는 큰 나라를 바친 집안은 진골을 부여받기도 하였습니다. 그 집안이 바로 김유신의 가문입니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김유신은 진골이었지만 금관가야 출신으로 기존 진골 귀족들의 견제를 많이 받았습니다. 결국 스스로 왕이 될 수 없었던 김유신은 정치적 동지였던 김춘추를 왕으로 옹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김유신과 김춘추의 정치적 연대는 김유신의 누이 문희가 김춘추와 결혼하는 이야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훗날 신라가 망하는 원인으로 많이 지적되는 골품제도는 초기 신라가 영토를 확장하는 가운데 지배체제 통합 과정에서 등장한 합리적인 제도였습니다. 6세기 법흥왕이 골품제도를 정비하고 율령을 반포하면서 신라는 더욱 큰 나라로 성장하였습니다.

골품이 낮으면 어떤 대우를 받았나요?

골품제도는 관리의 승진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17등급으로 이루어진 신라의 관등 제도는 철저하게 골품제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었습니다. 최고 관등 이별찬은 오직 진골만 가능했고, 6두품은 6등급 아찬까지만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5두품은 10등급인 대나마까지만 가능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6두품은 높은 관직(장관 등)에 오를 수 없었습니다.

골품제도는 관직 승진뿐만 아니라 혼인, 가옥의 크기, 마차의 장식까지 적용되었습니다. 당시 ‘6두품의 방은 길이와 폭이 21척을 넘을 수 없고, 5두품의 방은 18척을 넘어서는 안된다. 진골을 제외하면 집을 지을 때 느릅나무를 쓰지 못하고, 담장은 6척을 넘지 못하며, 석회를 칠할 수 없다’는 기록이 전해질 정도입니다.



최치원 초상화.

6두품들은 왜 당나라로 갔을까?

수백 년 전 자신의 조상 신분에 따라 올라갈 수 있는 관직이 결정되는 골품제도는 진골 이외의 지배층에 큰 반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6두품은 신분적 한계를 최대한 만회하기 위해 당나라 유학을 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당시 대표적인 6두품 지식인은 최치원이었습니다. 당나라로 건너간 후 빈공과에 합격하여 당나라 관리로 능력을 보였던 최치원은 신라로 귀국한 후 왕에게 새로운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뒤로 은둔생활을 선택했습니다. 당나라에서 장기간 수업을 받고 생활했던 6두품은 외국인조차 관리로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당나라의 개방적인 문화와 학문을 경험하고 귀국한 후 더욱 골품제도에 비판적인 입장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6두품은 반신라적인 태도를 갖게 됐고 신라말 호족과 결탁해 새로운 정치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6두품 집안이었던 최승우는 후백제 견훤의 책사로 활약하였고, 최원위는 고려를 세운 왕건의 신하로 새 나라 건국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강남대성학원 강사·전 이화여고 역사교사



핵심!

- 1 신라의 신분제도는? 골품제도
- 2 금관가야 출신으로 진골이 되었던 집안은? 김유신 집안
- 3 당나라에 건너가 활약한 대표적인 6두품은? 최치원

총천연색 함백산 올라... 마음의 먼지 털어냈다

강원 정선

세상에서 버티내려 안간힘을 쓰는 내가 불쌍할 때면 강원도에 가야 한다.

“영리함이 한계를 넘어서면 어리석음을 필요로 한다”던 조르조 아감벤의 말처럼, 대도시의 세속적 욕망이 임계점을 넘어선 시대에 나는 어리석게 보일 만큼 단순한 세계로 돌아가야 한다. 도시적 가치관이 규정하고 있는 어리석음이란 사실 정지함, 순수함, 느낌, 맑음 같은 것들이 아닐까.

겨울 강원도는 어리석음 정도로 순정한 곳이다. 묵묵한 폭설 속에 고요는 더욱 깊어지고, 풍경은 마치 얼음에 갇혀 멈춘 듯하다. 세속의 추위를 피해 더 추운 곳으로 가는 이의 마음을 차고 맑은 눈꽃으로 밝혀주는 강원도에 가야겠다.

강원도에서도 가장 말없이 순박한 땅은 정선이다. 장쾌한 바람으로 마음에 낀 먼지를 먼저 날리기 위해 나는 정선과 태백에 걸쳐 우뚝 솟아 있는 함백산에 오른다. 해발 1572m의 함백산은 백두대간 태백산맥 봉우리 중 하나로 호방한 위엄을 자랑한다. 1960년대 우리나라 탄광업이 호황을 누릴 때엔 전국 석탄 생산량의 30%가 함백산 탄광에서 채굴됐다. 그때 탄광이 무너져 광부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더러 생기자 광부의 가족들은 함백산 기원단에서 무사 안전을 빌었다.

예부터 함백산 기원단은 하늘에 소원을 빌던 민간신앙의 성지라고 한다. 1500m급 고봉인데도 만항재 기슭에 ‘하늘 아래 첫 마을’ 만항마을이 있는 덕분에 도로를 이용해 1300m 고지까지 오를 수 있다. 정상까지 오르는 여러 코스가 있지만, 평소 등산을 잘 하지 않는 나로서는 장거리 코스가 부담스럽다.

봄산이나 가을산이라면 모를까 제대로 된 등산화도, 아이젠도 없는 내게 설산은 더욱 무리였다. 차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곳, 1300m 고지의 KBS 중계소 부근까지 차를 몰고 간 다음 거기서부터 천천히 걸어 올랐다. 흰 눈을 이불처럼 덮은 산은 차디찬 푸른 하늘과 그 색채가 대비되며 총천연색을 뽐냈다. 우뚝지마다 피어 있는 얼음 눈꽃이 아름다웠다.

벌떼처럼 맹렬한 눈발의 날갯짓에 귀를 달래며 쉬엄쉬엄, 40분 만에 정상에 올랐다. 1500m 고봉을 40분 만에 오르다니, 이런 가성비 등산이 또 있을까. 함백산 꼭대기 바람이 얼마나 센지, 거구인 나머지도 정말 날아가는 줄 알았다. 사진을 찍다가 스마트폰을 놓칠 뻔했는데, 놓쳤다면 아마 종이비행기처럼 날아갔을 것이다. 그런데 두 뺨을 마구 후려치는 태백산맥의 찬바람이 오히려 다정하게 느껴졌다. 도시 생활에서 답답하게 막혔던 마음의 창문을 시원하게 열어준 까닭이다.

고작 40분 걸어 올라간 산에서 친구와 나는 전문 산악인인 양 허세를 부리며 사진을 찍었다. 그마저도 함백산의 넉넉한 배려라는 생각이 들어 감사했다. 불과 한 시간 만에 1572m 고산을 오르내렸는데 그것도 등산이라고 허기가 졌다. 정선 읍내로 향했다. 강원도 토속음식이 먹고 싶었다. 정선 아리랑시장 ‘팔도식당’의 문을 열고 들어가 앉았다. 배추전, 수수부꾸미, 메밀전병, 빈대떡과 산초두



함백산.

부, 콧등치기국수까지 푸짐하게 먹었다. 자극적인 조리법 없이 재료 본연의 맛을 그대로 살린 자연친화적 음식은 인스턴트와 배달 음식에 지쳤던 나에게 산뜻한 축복이 되었다.

하룻밤 묵어갈 곳은 고려 말기에 지어진 고택 상유재(桑惟齋)다.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89호인 이 오래된 집에는 수령이 600년 넘는 뽕나무가 있다. 뽕나무 상(桑)과 생각할 유(惟)를 써서 상유재, 즉 뽕나무를 생각하는 집이자 뽕나무처럼 생각하는 집이다. 600년을 살아온 뽕나무의 느긋한 지혜를 배워야겠다고 생각하자 한 시간짜리 속성 등산이 더 우습게 느껴졌다.

땀을 위 고무신 옆에 운동화를 벗어두고, 창호지 문틈으로 겨울바람이 들어왔다 나가는 방에 이불을 깔았다. 뜨끈한 아랫목에 등을 대고 누우니 겨울바람에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이 뽕송하게 마르는 듯했다. 밖은 바람 소리 때서웠지만 꿈속은 고요하기만 했다.

저녁을 너무 많이 먹은 탓인지 뽕나무를 생각하는 방안에서 자꾸만 뽕 뽕 소리가 들려왔지만... 나는 아니다. 투박하지만 파스한 풍경, 역세지만 정직한 음식들, 뽕나무처럼 느리게 사는 사람들. 겨울인데 마음이 파스했다. 겨울에 봄을 느끼게 해주는 강원도의 넉넉한 품속에서 밤은 오래도록 다정했다. 나는 정선 출신 전운호 시인의 시를 외우면서, 살다가 언젠가 또 무심코 정선에 와야겠다고 생각했다.

“다시 찾아온다고 옛사랑이 기다려 주나/ 불빛이 제 몸만 간신히 밝히는 공설운동장에서/ 토끼처럼 펴며 입 맞추던 애송이들/ 어디로 갔나 배신에 울면서/ 친구에게 주막질하던/ 도무지 어른이 될 것 같지 않던 천동별거숭이들/ 친절하지 못한 미래를 욕하며/ 함부로 침을 뱉던 굴목은 사라지고/ 우산을 펼친 시장엔/ 검은 비닐봉다리 하나씩 들고/ 낯선 사람들이 웃고 있는데/ 역전으로 가는 강가에 묶인 배처럼 흔들리며/ 너를 생각한다고 그때가 돌아오겠나” (전운호, ‘무심코 정선’ 부분)



이병철 시인의 여행 스토리



여행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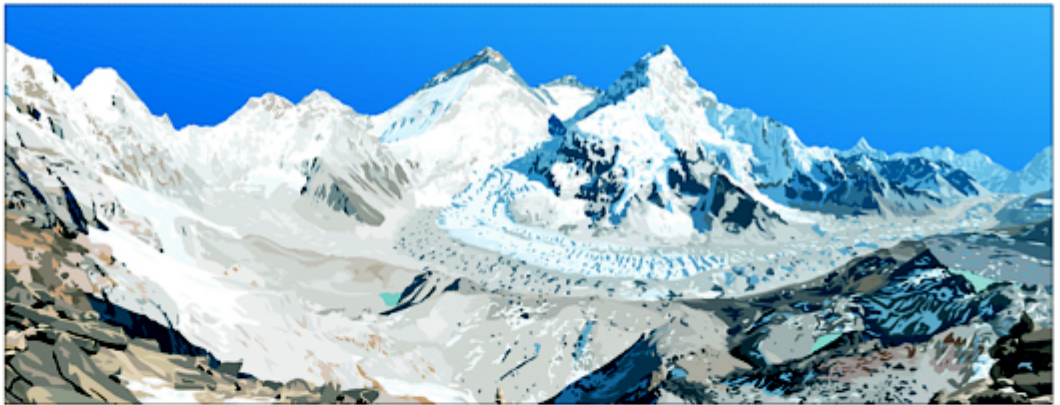
정선역까지는 청량리역에서 정선아리랑열차를 타고 약 4시간 정도 소요된다. 정선역 도착 후 아리랑시장까지는 걸어서 15분, 역 앞에 있는 버스를 타면 10분 정도 걸린다. 아리랑시장에서는 명물인 콧등치기국수, 수수부꾸미부터 겨울 간식 감자떡, 쨍빵 등 다양한 주전부리를 든든하게 맛볼 수 있다.



기후 시스템 정보 저장소 ‘빙하’가 사라지면



신진화 박사의
신비한 지구과학



게티이미지뱅크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유퀴즈)’의 서현진 편을 보고 있었다. 그의 긴 무명 시절 이야기에 깊이 공감이었다. 무명 시절 부모님이 그에게 건넸던 “안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니”라는 말은 지난 5년간 내가 스스로 되뇌었던 말이기도 했다. 연구 성과로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는 중압감 속에서 나는 큰 좌절을 겪었다. 연구자의 길이 정말 내 길이 맞는지 깊이 고민했던 순간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2021년 나는 캐나다 로키산맥에 위치한 컬럼비아 아이스필드에서 시추한 10m 길이 고산 빙하를 연구하고 있었다. 이곳은 북극 다음으로 큰 빙하지대로, 기후변화로 인해 급격히 녹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연구에 따르면 이 지역 빙하는 2100년이 되면 2005년과 비교했을 때 70% 이상 사라질 것으로 예상될 만큼 빠르게 녹고 있다.

빙하 시추 후 내가 가장 먼저 진행한 작업은 물 동위원소 분석이었다. 물 동위원소 값은 여름철에는 높고 겨울철에는 낮은 패턴을 보인다. 이러한 계절적 변화를 통해 빙하의 연령을 추정할 수 있어 가장 먼저 분석을 진행했다. 데이터를 측정된 뒤 그래프로 그려보았다. 빙하를 시추한 시점이 2020년 4월이었으니 그래프에서 0m 지점은 2020년 4월을 나타낸다. 데이터는 예상대로 낮아졌다가 올라가는 곡선을 그리며 계절적 변화를 보였다. 그러나 4.2m부터 이상현상이 나타났다. 그래프가 자로 그은 듯 평평해지며 더 이상의 변화가 없었다. 그래프에서 패턴이 사라졌다는 것은 해당 구간 빙하가 녹으면서 빙하에 기록된 데이터가 혼합돼 균질해졌음을 의미한다. 패턴이 사라진 데이터를 들여다보면서 기후변화가 빙하에 남긴 상처를 생생하게 마주한 기분이 들었다.

빙하가 녹는 데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다. 빙하를 물로 변화시킬 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는 태양광, 바람, 구름 등 여러 환경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따뜻한 공기다. 산맥을 넘어 내려오는 따뜻한 바람은 빙하 표면의 온도를 높이고 얼음을 녹

인다. 게다가 구름은 햇빛을 차단할 것 같지만 때로는 따뜻한 복사열을 빙하로 전달해 ‘덮개 효과’를 일으키기도 한다. 빙하의 크기, 모양, 그리고 위치 또한 융해 속도에 영향을 끼친다. 경사가 급한 지역이나 빙하 표면이 햇빛을 많이 반사하지 못하는 어두운 곳은 더 빨리 녹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먼 거리에서 날아온 먼지나 산불로 발생한 검은 입자들이 빙하 표면에 쌓이면, 표면이 어두워져 더 많은 태양열을 흡수하고 결국 빙하를 녹일 수 있다.

데이터를 확인한 후 회의를 열었다. 프로젝트를 기획한 교수가 말했다. “이제 중위도 지역의 고산 빙하 연구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아. 빙하가 녹지 않고 기후 기록이 연속적으로 남아 있는 시료를 찾는 일이 불가능해질지도 몰라.” 연구를 진행한 지 2년이 지난 그날 우리는 연구가 실패로 끝났음을 선언해야 했다.

빙하가 녹는다는 것은 마치 몇 년간 찍어둔 휴대전화 속 사진을 모두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 산업혁명 이후부터 사람들은 기후 데이터를 직접 측정하기 시작했다. 이 말은 반대로 산업혁명 이전에는 직접적으로 측정된 기후 데이터가 없다는 뜻이다. 이를 더 잘 알기 위해 다양한 지역에서 빙하를 확보하고 과거 데이터를 최대한 복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빙하학자들이 빙하를 시추하고 이를 보존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렇듯 여 아이스 메모리 프로젝트(Ice Memory Project)다.

이 프로젝트는 훼손될 위험에 처한 빙하 코어를 수집하고 이를 보존 및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집된 빙하 코어는 안전한 남극에 보관돼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보존될 예정이다. 연구 실패는 연구자에게는 사망선고와도 같다. 하지만 아직은 운이 좋아 이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다. 이 글을 읽는 학생들 중 누군가가 이를 계기로 빙하에 관심을 갖고 먼 미래에 빙하학자로서 나와 만나게 되기를, 그 날이 올 때까지 나 또한 빙하학자로서 묵묵히 잘 살아남고 싶다. 지금까지 이 글을 읽어준 독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극지연구소 박사



- 1 빙하는 환경적 요인에 영향받아 녹을 수 있다.
- 2 기후 시스템 알기 위해 여러 지역 빙하 확보가 필수
- 3 빙하 보존 위한 아이스 메모리 프로젝트 진행 중

‘비둘기 미신’ 실험서 배우는 투자전략

어떤 심리학자가 빈 방에서 먹이를 주며 비둘기들의 행동을 관찰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모이통 앞에서 비둘기들은 저마다 다른 행동을 했다. 어떤 비둘기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빙빙 돌았고, 다른 비둘기는 머리를 위아래로 흔들었고, 또 다른 비둘기는 먹이 통의 모서리를 부리로 쪼았다. 비둘기들은 이러한 행동이 먹이를 얻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믿었지만, 실제로 먹이는 그들의 행동과 무관하게 무작위로 제공됐다. 이는 행동주의 심리학자 버러스 프레더릭 스키너(Burrhus Frederic Skinner)가 설계한 ‘비둘기 미신(Pigeon’s Superstition)’ 실험에서 밝혀진 현상이다.

스키너는 우발적 강화(accidental reinforcement) 개념을 통해 동물이 특정 행동과 보상을 잘못 연결 짓는 경향을 입증했다. 실험에서 비둘기들은 무작위적으로 제공된 먹이를 특정 행동의 결과로 착각하며 반복했다. 어떤 비둘기는 머리를 좌우로 흔들고, 또 다른 비둘기는 특정 방향으로 빙글빙글 돌았다. 이 실험은 생명체가 주변 사건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본능이 때로는 잘못된 인과관계를 만들어 비합리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인과관계에 대한 착각은 ‘세’를 하등한 동물로 치부하는 인간에게서도 흔히 나타난다. 고대 인류는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창궐처럼 불확실성과 무작위성이 큰 환경 속에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천문학을 발전시켰다. 별과 행성의 움직임을 관찰해 계절의 변화를 예측한 후 달력을 만들고 농업과 사회 구조를 발전시켰다. 논리적 근거를 둔 천문학은 명확한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성과였다. 그러나 별자리와 운명을 연결하려는 점성술의 시도는 달랐다. 이는 천문학의 부산물로 나타난 비합리적 믿음으로 당시에는 인간 삶의 설명 방식 중 하나였지만 현대적 관점에서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미신의 기원이라고 평가된다.

과거의 허황된 믿음은 놀랍게도 현대 사회에서도 강하게 우리 곁에 남아 있다. 여전히 많은 사람이 별자리 운세를 통해 자신의 성격을 분석하거나 미래를 점친다. 과학적 근거가 부족함에도, 점성술은 심리적 위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소원을 비는 전통 역시 희망과 안정을 주는 상징적 의례로 자리 잡았다. 이는 인간이 무작위적 사건에서도 의미를 부여하려는 경향을 여전히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오늘날 금융시장에서도 유사한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투자 가치나 경제 펀더멘털보다 군중 심리와 행동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사례는 2021년과 2024년에 일어난 ‘밈 주식’ 현상이다. 게임스톱(GameStop)과 AMC 엔터테인먼트 같은 주식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형성된 실체 없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급등했다. 이후 주가가 급락하며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봤다. 투자자들은 기업 펀더멘털을 분석하기보다는 군중 심리에 의존, 정서적 반응에 따라 투자 결정을 내렸다.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관찰된다. 2024년 11월, 비트코인 가격은 9만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이후 급락하는 등 극단적인 변동성을 보였다. 가격 변동은 처음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같은



게티이미지뱅크

긍정적 뉴스에서 시작됐지만 본질적 가치보다는 과열된 기대감이 시장을 주도했다.

자산 시장이나 투자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투자자들은 종종 논리적 근거 없이 시장에 접근한다. 이들은 주가 그래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때론 특정 징크스에 의존하며, 막연한 기대에 기반해 비합리적 결정을 내린다. 특정 날짜에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헛된 믿음을 가지거나 과거 특정 행동으로 성공했던 경험을 과도하게 일반화하기도 한다. 이는 비둘기 실험에서 나타난 ‘미신적 행동’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런 경향은 더욱 두드러진다. 투자자들의 비합리적인 행동은 극단적인 가격 변동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군중 심리에 따르는 행동은 단기적으로 심리적 위안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투자에서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실질 가치에 기반을 둔 분석과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 별자리와 비둘기의 미신을 넘어, 투자에서만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인간은 이성과 합리적 사고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둘기와 다르다. 이제 그 능력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때다.



최병일 교수의 모든 것의 경제학



시사용어 CHECK

가상자산

지폐나 동전처럼 실물은 없지만 사이버상으로만 거래되는 자산의 일종.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일반 화폐와 달리 개발한 사람이 정한 규칙에 따라 가치가 매겨지는 것이 특징이다.



생산역량 보여주는 GDP... 우리나라 규모는?



틴매경TEST
공부합시다

GDP(Gross Domestic Product·국내총생산)는 국민 소득을 측정하는 지표로 '연간' '국내에서 새롭게 생산된'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 총합'으로, 한 나라의 생산역량을 보여줍니다. 파이를 조각으로 나눠 먹으려면 일단 파이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파이의 크기(economic pie)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GDP를 측정한다는 것은 이 파이의 크기를 재고, 이 파이가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되고, 또 누가 얼마나 먹는지 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래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아래 [그림]은 Y0~Y1년 A국의 지출측면 명목 GDP의 구성 항목별 규모를 나타낸 것이다. 다음 중 Y1년 A국 거시경제 상황에 대한 올바른 해석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단, 해당 기간 물가는 일정하다.)

(단위=조원)		Y1년	
Y0년		Y1년	
소비 900		소비 1000	
투자 400		투자 350	
정부 지출 500		정부 지출 700	
수출 600		수출 550	
수입 500		수입 600	

[그림]A국 지출측면 GDP 구성

<보기>

- ① 민간지출의 규모는 전년보다 증가했다.
- ② 경상수지는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됐다.
- ③ GDP는 전년 대비 100조원 증가했다.
- ④ GDP 대비 정부지출의 비중은 전년보다 증가했다.
- ⑤ 기업의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활동은 전년보다 증가했다.

<해설>

GDP는 국민소득을 측정하는 대표 지표로, 생산(총산출 또는 총생산)과 분배(임금, 이자·배당금, 지대) 그리고 지출(소비, 투자, 정부지출, 순수출)이라는 서로 다른 세 측면에서 측정할 수 있으며, 오차 및 누락이 없다면 사후적으로 모두 같다. 이 가운데 지출 GDP는 국민소득의 쓰임새를 경제주체(가계, 기업, 정부, 외국)별로 집계한다는 점에서 특히 유용하다. 총지출은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순수출(=수출-수입)의 합과 같고 총지출은 국민소득삼면등가의 법칙에 따라 총생산과 같으므로, '총생산=소비+투자+정부지출+순수출'의 관계가 성립한다.

- ①: IOI 민간지출은 소비와 투자로 Y0년 1300조원에서 Y1년 1350조원으로 증가했다.
- ②: IOI 수출에서 수입을 차감한 순수출은 Y0년 100조원 흑자에서 Y1년 50조원 적자로 전환됐다.
- ③: IOI GDP는 Y0년 1900조원에서 Y1년 2000조원으로 100조원 증가했다.
- ④: IOI GDP 대비 정부지출의 비중은 Y0년 5/19(=

500조원/1900조원)에서 7/20(=700조원/2000조원)로 상승했다.

⑤: IOI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기업의 활동은 투자다. 투자는 Y0년 400조원에서 Y1년 350조원으로 감소했다. 정답 ⑤

<관련 내용>

국민소득삼면등가의 법칙에 따르면 GDP는 생산, 분배, 지출 세 측면에서 모두 같습니다. 이는 일단 생산된 것은 생산활동에 참여한 모두에게 남김없이 분배되고, 또 이렇게 분배된 소득은 어떠한 형태로든 지출되기 때문입니다. 생산 GDP는 생산요소인 노동, 자본, 토지를 이용해 생산한 재화, 서비스 총량의 시장가치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GDP의 개념에 가장 잘 부합하는 직관적 방법이지만 실제 측정엔 만만치 않습니다. '연간' '국경 안'에서 '새롭게 생산된'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 합을 중복이나 누락하지 않고 더한다는 것은 얼핏 생각해도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반도체, 완성차, 주민센터 공무원의 노동, 국책연구소 연구원의 연구 활동, 물류센터 직원의 노동, 증권사 직원의 트레이딩 등 얼마나 많고 다양한 종류의 재화와 서비스가 매일매일 생산되고 있는지 떠올려보면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분배 GDP는 이렇게 생산된 것은 생산에 기여한 경제주체에 소득의 형태로 남김없이 지급된다는 점에 착안해 GDP를 계산한 것입니다. 노동을 제공하면 그 대가로 임금을, 자본을 제공하면 이자(채권, 예금)와 배당금(주식)을, 토지를 제공하면 임대료를 반대급부로 받습니다. 이를 요소소득이라고 하는데 이들을 모두 더한 것이 분배 GDP입니다. 일단 생산된 것은 생산요소를 제공한 사람에게 남김없이 금전적 대가로 돌아가므로 이론적으로 그 값은 생산 GDP와 같습니다.

지출 GDP는 가계, 기업, 정부의 지출 활동 총합으로 소비, 투자, 정부지출 그리고 순수출의 합과 같습니다. 소비, 투자, 정부지출은 각각 가계, 기업, 정부의 지출 활동으로 여기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생산된 것에 대한 지출, 즉 수입도 포함됩니다.

수입품은 GDP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는 차감해야 합니다. 한편 외국이 우리나라 재화와 서비스를 외국에서 수입한 것, 즉 수출은 GDP에 포함되므로 더해줍니다. 수출에서 수입을 차감한 것을 순수출(net export)이라고 하며, 이 값이 양(+)이면 수출이 수입보다 크다는 것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반대로 이 값이 음(-)이면 무역수지 적자(-)를 의미합니다. 지출 GDP는 국민소득이 경제주체별로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쓰이고 있는지, 또 정부와 중앙은행의 정책이 각 경제주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려준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용합니다.

경제경영연구소 최봉재 책임연구원



시사용어 CHECK

생산 GDP: *f(노동, 자본, 토지)
분배 GDP: 임금 + 이자 및 배당금 + 임대료
지출 GDP: 소비 + 투자 + 정부지출 + 순수출

*생산함수 f
생산요소(노동, 자본, 토지)를 조합하는 기술을 묘사하는 추상적 개념으로 그 형태가 어떠한지는 알 수 없으며 추정해야 할 대상.



필수가 된 ‘국어 문법’... 반복 학습만이 해결책

예비 고1을 위한 겨울방학 국어학습법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기대와 걱정, 설렘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예비 고1 친구들을 위해 준비했다. 이번 겨울방학을 얼마나 알차게 보내느냐에 따라 고등학교 진학 이후의 학습 전반이 달라지게 되므로 주목해보자.

1 수능 준비는 지금부터 해야

내신과 수능을 분리해 고1, 고2 때까지는 내신 학습에 집중하고 고2가 끝나갈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수능을 위한 학습에 돌입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그러한 학생들 대부분이 결국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게 된다. 예비 고3 학생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지금까지 제대로 된 국어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라는 이야기를 흔하게 듣는다. 심지어 수능이 가까워진 시점에도 같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이 적지 않다.

고3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 입시 일정들로 인해 수능을 위한 학습에 전념하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껏 ‘내신 학습법’에 몰입해 있던 사고 과정을 갑자기 교정하기는 더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같은 듯 다른, 다른 듯 같은 내신 국어와 수능 국어를 모두 챙기려면 예비 고1 겨울방학 때부터 학습 방향 설정을 올바르게 해야 한다. 국어 실력은 꾸준히 천천히 채워진다는 점을 기억하자.

2 기출문제, ‘양치기 학습’은 지양할 것

고등학교 입학 앞두고 의욕에 넘치는 학생들이 가장 흔하게 선택하는 학습은 고1 평가원 기출문제 모음집을 구입해 매일 일정 분량 이상씩의 문제를 풀고 채점하는 방식이다. 시간을 재고 열심히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한 후, 해설지를 읽으며 이해하는 과정을 겨울방학 기간 내내 반복하며 두꺼운 책 한 권을 끝낸다. 무언가 열심히 해냈다는 성취감과 함께 겨울방학을 알차게 보냈다고 뿌듯해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야 무엇이랄도 하는 것이 낫겠지만, 이러한 학습으로는 만족스러운 국어 점수를 받기 어렵다. 보다 외달는 설명을 위해 현행 수능의 9등급 체계를 바탕으로 이야기해보자. 양치기 학습을 통한 성적 향상은 대략 3~4등급까지가 한계이다. 더 낮은 점수에서 그 정도까지 성적을 올렸으니 같은 방식으로 더 많이 하면 1등급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큰 착각이다. 시간이 갈수록 효율은 더욱 감소해 오히려 성적이 하락하기까지 한다.

3 스스로 글을 읽고, 생각하고, 근거를 찾아야

앞서 이야기했던 ‘양치기 지양’과 같은 맥락이다. 여기에는 ‘무비판적 강의 의존 지양’까지도 포함된다. 국어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어진 텍스트를 스스로 읽고 의미를 파악하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보통 ‘독서 영역’을 떠올리기 마련인데, 이는 꼭 비문학에 한정된 이야

기가 아니다. 독서든 문학이든 출제자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은 ‘글을 정확히 읽고 이해할 수 있는가’이다. 쉽게 말해, ‘독해 및 사고력 측정을 위한 시험’에 출제되는 글의 종류가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을 제재로 하는 비문학 이기도 하고, 장르를 불문한 문학 작품이기도 한 것이다. 두 영역 간 차이는 없다.

이에 대해 충분히 받아들였다면, 이제 기출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이야기해보자. 우선, 시간 제한은 두지 않기로 한다. 주어진 지문에 제시된 문장들을 한 문장씩 꼼꼼하게 읽으며 내용을 파악한다. 주어-서술어 및 문장 간 연결 관계와 핵심 내용들을 간추리며 읽으면 더더욱 좋다. ‘무슨 말인지 알겠다’ 수준이 아니라, 완벽하게 이해될 때까지 읽는다. 지문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끝났다면 문제를 푼다. 선지 1번부터 5번까지의 근거를 지문에서 정확히 찾아낸다. 이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도 상관없다. 명확한 근거를 찾아나가는 과정 자체가 모두 실력 향상을 위한 밑거름이다. 모든 선지의 근거를 스스로의 힘으로 찾았다면, 해설지를 볼 필요도 없이 깔끔하게 정답이 도출될 것이다. 여기까지가 ‘기출 분석’의 기본이다. 이런 방식으로 학습한다면 지문 하나에 1시간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다. 시간 낭비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니 조바심 내지 말자.

4 ‘국어 문법’ 학습은 선택이 아닌 필수

예비 고1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8학년도 수능 개편안에 따르면, ‘통합형 과목 체계’가 도입돼 선택 과목이 사라진다. 현행처럼 ‘독서, 문학’이 공통 과목으로,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이 선택 과목으로 구성된 시험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으로 구성된 시험을 치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수능에서는 물론이고 고1부터 고3까지 내신 시험에서도 국어 문법 학습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국어 문법 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심리적 거부감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학습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문법 학습에 흥미를 느끼는 학생이라고 할지라도, 학습해야 할 내용이 결코 적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자. 그리고 구구단 외우기에 성공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려 보자. 학습할 때의 과정, 학습 이후의 활용 측면에서 둘은 공통점이 많다. 처음에는 방대한 양에 압도돼 부담을 느낄 수 있지만 좌절하지 않고 가벼운 마음으로 계속해서 반복하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체계가 잡혀 있을 것이다. 뒤돌아서면 잊어버린다는 점도 같다. 원래 그런 것이니 자괴감을 느낄 필요 없다. 완벽하게 나의 것이 될 때까지 느긋한 마음으로 반복하자. 하루 아침에 완성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니니, 이번 겨울방학에는 국어 문법 전체에 대한 굵직한 체계라도 만들어두는 것이 좋겠다.

메가스터디강사



이수민 강사의
국어 클리닉



- 1 예비 고1, 수능을 위한 학습은 지금부터 당장
- 2 국어를 국어답게, 스스로 읽고 생각하기
- 3 ‘국어 문법’은 필수, 반복 학습 지속하기



어휘력 확장·듣기점수 확보... 영어 1등급 보인다



주혜연 강사의
영어특강

겨울방학이 처음에는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빠르게 지나간다. 이 중요한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새 학년의 방향이 달라지기도 한다. 성적대 및 시기에 따라 영어 학습법을 달리해야 하는데 효율적인 학습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함께 알아보자.

1 성적대별 학습법

상위권 (1~2등급) : 실전 감각 유지 및 약점 보완

겨울방학 동안 영어 실력을 유지하고 약점을 보완하려면, 문제를 단순히 기계적으로 푸는 것을 넘어 사고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셀프피드백(SELF-FEEDBACK)을 통해 학습 전략을 세워야 한다. 셀프피드백은 단순히 정답 확인에 그치지 않고,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자신의 사고 과정을 '복기'하며, 논리적인 오류나 비효율적 접근 방식을 찾아 수정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문제를 풀 때 어떤 생각을 거쳤는지 되돌아보고, 더 효과적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을 고민하며 보완한다. 정답뿐만 아니라 모든 선택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각 선택지가 왜 정답이 아니었는지 논리적으로 따져보는 훈련을 병행한다. 이처럼 문제 풀이 이후 자신의 사고 과정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학습법은 단순히 많은 문제를 기계적으로 푸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또한 기출문제를 유형별로 체계적으로 분석해 자신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보완하는 것도 중요하다. 영어 독해의 속도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고난도 지문을 풀어보며 실전 감각을 유지하도록 하자.

중위권 (3~4등급) : 기초 강화 및 실전 대비 시작

중위권(3~4등급) 학생들에게 겨울방학은 기초를 강화하고, 실전 대비를 시작하는 데 중요한 시기다. 이 단계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은 탄탄한 어휘력을 갖추는 것이다. 단순히 영어단어와 한글 뜻을 매칭하는 방식의 암기가 아니라, 핵심 어휘들의 문맥상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어휘력을 확장해야 한다. 동일한 단어가 문맥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파악하고, 실제 지문에서 이를 정확히 적용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위권 학생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문제는 긴 문장을 정확히 해석하지 못하고, 아는 단어를 중심으로 대충 내용을 추론하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학 중 최소 한 달은 문장 단위 해석 연습에 집중해야 한다. 복잡한 문장의 구조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훈련을 통해 독해의 정확도를 높이고 실전에서 실수를 줄이자. 너무 어려운 유형에 지나치게 집착하기보다는, 약간의 연습을 통해 안정적으로 맞출 수 있는 유형부터 문제 풀이 연습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빈칸 추론이나 주제 찾기처럼

출제 빈도가 높은 유형을 연습하며 자신감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위권 (5등급 이하) : 기초 다지기 및 기본 문제 학습

하위권(5등급 이하) 학생들에게 겨울방학은 기초를 다지고, 영어 학습의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목표는 기본기를 탄탄히 하고 쉬운 문제에서 완벽을 추구하며 영어 학습에 대한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다. 우선 영어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 원리를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중학교 내신에서 다루던 문법 분류를 다시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영어는 이런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단어를 이런 방식으로 배열하는구나' 같은 기본적인 이해는 필요하다.

쉬운 지문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독해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점차 긴 문장에도 도전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휘는 기본 독해와 듣기의 기반이 되므로 필수 어휘를 꾸준히 암기하고 자신의 어휘력을 점검해야 한다. 듣기 영역은 독해보다 상대적으로 효과적으로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분야다. 문제 유형에 따라 단서가 배치되는 위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유형별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특정 유형에서는 질문에 대한 답이 스크립트 앞부분에 나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초점을 맞춰 듣는 연습을 한다. 기출문제 분석 시에는 어려운 문제에 시간을 쓴기보다는, 연습을 통해 안정적으로 맞출 수 있는 문제부터 학습하면서 자신감을 쌓아나가자.

2 시기별 학습법

효과적인 영어 학습을 위해서는 시기별로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12월부터 2월까지의 문장 해석의 정확성을 높이고 문제 유형별 특성과 전략을 이해하는데 집중한다. 3월부터 5월까지의 모든 유형에 익숙해지기 위해 다양한 문제를 고르게 풀어보며 실력을 다진다. 자신의 약점과 강점을 확인하고, 보완할 부분을 찾아 집중적으로 학습한다. 6월부터 8월까지의 빈칸 추론이나 순서 배열같이 까다로운 유형을 집중적으로 연습하며 고난도 문제에 대한 자신감을 키운다. 마지막으로 9월부터 11월까지의 시간 단축을 목표로 실전 연습을 한다. 실제 시험과 유사한 환경에서 문제를 풀며 시간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실전 감각을 극대화한다. 이투스강사



게티이미지뱅크



- 1 상위권은 셀프피드백 반복 실천
- 2 중위권은 긴 문장 해석 능력 향상
- 3 하위권은 듣기문제 유형별 단서 파악 및 연습



‘생명의 신비’ DNA 이중나선 구조 밝혀내기까지

DNA가 유전 물질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 과학자들은 그 구조를 연구해 DNA가 어떻게 유전을 담당하는지 알아내고자 했다. 1952년 영국의 윌킨스와 프랭클린은 X선 결정학 기술을 이용해 DNA 결정의 X선 사진을 얻었다. 이 사진에서 DNA가 나선이라는 사실과 위와 아래의 어두운 부분은 특정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윌킨스와 프랭클린은 DNA의 입체 구조를 밝히기 위해 DNA의 결정을 만들고, 여기에 X선을 쬐어 회절 양상을 얻었다. X선 결정법(X-ray crystallography)이라고 하는 이 실험은 투사된 X선이 결정 내에 있는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분자 구조에 의해서 어떻게 굴절되는지 조사함으로써 결정의 미세 구조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다. 실험 결과 그들은 DNA가 바깥 표면에 인산 구조를 가진 나선형이며 2개의 가닥으로 구성돼 있고, DNA 분자 내에서 2.0nm, 0.34nm로 반복돼 나타나는 것이 있음을 알았다. 하지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윌킨스와 프랭클린은 알지 못했다.

사가프(1905~2002)는 1940년대 여러 생물종으로부터 뉴클레오타이드의 양을 조사했다. 뉴클레오타이드의 양이 같은 종에서는 일정하며, 나아가 아데닌(A)의 비율은 항상 티민(T)의 비율과 같고, 구아닌(G)의 비율은 사이토신(C) 비율과 항상 같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즉, A+G의 비율은 50%이고 T+C의 비율도 50%인데, 이러한 관계를 사가프의 법칙이라고 한다.

1953년 왓슨과 크릭은 사가프의 법칙과 윌킨스·프랭클린이 알아낸 사실을 토대로 A, C, G, T의 분자 모형을 가지고 DNA 모델을 만들고자 하였다. 그들은 모델 조각들을 끼워 맞추다가 아데닌과 티민 그리고 구아닌과 사이토신 분자의 표면이 서로 잘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아데닌과 티민, 구아닌과 사이토신은 구조상 서로 잘 들어맞는 결합 쌍을 이룰 것으로 예측했고, 이것은 의문이었던 사가프의 법칙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X선 결정 실험 결과를 토대로 DNA는 바깥쪽에 인산, 당 골격을 가지고 안으로 염기가 마주 보는 두 가닥의 사슬이라고 추정했다. 왓슨과 크릭은 DNA 모델을 완성한 후 이중나선(double helix) 모델이라 불렀다. 이 구조는 염기가 쌍을 이루어 한 평면을 형성하고, 이것이 당과 인산의 외부 골격에 연결돼 전체적으로 나선형 계단 모양을 만든다.

“우리는 DNA(디옥시리보핵산)의 구조를 보이고자 한다. 이 구조는 생물학적으로 의미심장한 새로운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시작하는 한 편의 짧은 논문은 DNA 복제와 전사 및 번역의 유전 정보 중심 원리를 이루는 분자생물학의 기본적인 신비를 밝혀냈다. 논문 제목은 ‘핵산의 분자 구조: 디옥시리보핵산의 구조’로 전문은 단지 842개 단어와 128줄로 구성됐다. 이 논문은 1953년 4월 25일에 과학잡지 ‘네이처’에 발표됐으며 같은 호의 네



게티이미지뱅크

이처지에 왓슨과 크릭의 또 다른 논문과 윌킨스와 프랭클린의 논문 2편이 함께 수록되었다.

DNA 구조를 밝힌 공로로 1962년 왓슨과 크릭, 윌킨스는 노벨상을 받았다. 하지만 X선 회절 사진으로 DNA 이중나선 구조를 밝히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프랭클린은 노벨상을 수상하지 못했다.

프랭클린의 X선 회절 사진은 그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기술로 촬영해 DNA가 나선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는데 왜 노벨상을 받지 못했을까? 노벨상은 노벨위원회 규칙에 따라 수상 발표 당시 살아 있어야 하며, 공동 수상자는 최대 3명까지다. 프랭클린 박사는 1958년 37세의 꽃다운 나이에 난소암으로 유명을 달리해 수상자에서 제외되었다.

왓슨과 크릭이 이중 나선의 신비를 알아냄으로써 생물학에는 일대 혁명이 일어났고, 생명체에 대한 과학자들의 사고는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다. 가장 중요한 결과는 생명을 바라보는 철학적 관점의 변화다. 반세기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 사람은 생물은 무생물과는 다른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을 뿐 그 실체가 무엇인지는 상상도 하지 못하였다. 왓슨과 크릭의 업적은 유전 현상의 신비를 넘어 생명 현상의 발견 기작을 푸는 열쇠를 제공하였다. DNA 이중 나선 모델을 통해 DNA에 존재하는 염기 순서가 유전 정보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유전 정보가 어떻게 복사되는지는 물론 4염기가 반복되어 구성된 DNA의 염기 순서가 어떻게 유전 암호로 작용하는지를 밝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멘델이 유전 법칙을 발견한 후 왓슨과 크릭이 유전자의 분자 구조를 규명함으로써 20세기 후반부터 유전자의 기능 연구와 유전자 조작이 가능해졌다. 분자 유전학의 발전으로 생명에 관한 신비의 베일은 하나씩 벗겨지고 있으며, 유전자가 어떻게 생명체의 형태 형성과 발생 과정에 작용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DNA의 실체에 대한 이해에 따라 1970년부터 생명 현상의 인위적인 조작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유전공학, 나아가 생명공학을 통해 인류는 제2의 산업혁명 시대를 맞게 되었다. 이투스강사



이승후 강사의
과학탐구 특강



- 1 DNA 이중 나선 구조 밝힌 사람은 왓슨과 크릭.
- 2 사가프의 법칙 : A의 비율은 T와 같고 G의 비율은 C와 같다.
- 3 프랭클린은 X선 회절 사진으로 DNA 이중 나선 구조를 밝히는 데 결정적 공헌.

고득점자 수시 몰려... 정시 경쟁률 하락할 듯

2025학년도 정시모집 체크 포인트

2025학년도 수능은 국어, 수학, 영어 등 모든 영역에서 쉽게 출제됐다. 정시모집에서는 어떤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자.

쉽게 출제된 수능으로 수능 최저 충족자 증가

올해는 영어 영역에서 1등급을 받는 학생이 지난해 대비 증가해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자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수시모집으로 의대 및 최상위권 대학에 합격하는 수능 고득점자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수능이 어렵게 출제돼 최상위 변별력이 확보됐다면 높은 표준점수를 받은 학생들이 면접이나 논술을 포기하고 정시모집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할 여지가 있지만 올해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수능이 쉽게 출제돼 변별력이 약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불확실한 정시모집에 대비해 최대한 수시모집의 기회를 살리려는 경향이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능 고득점자 수시모집에서 다수 선발

2025학년도 대입의 가장 큰 이슈는 단연 의대 증원이 다. 당초 2000명에서 1497명 증원으로 조정되긴 했으나 매우 큰 규모이다. 전형 유형별로 살펴보면, 수시모집에서는 교과 637명, 종합 459명, 논술 62명으로 총 1166명이 증원됐고, 정시모집에서는 311명이 증원됐다. 이에 전체 선발 인원 4610명은 수시모집 3118명, 정시모집 1492명으로 선발한다.

전체 의대 증원 중 수시모집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약 1200명이 늘어났는데 이 중 74.2%가 지방에 배정됐다. 수시모집은 정시모집보다 앞서 선발하기 때문에 수시모집 확대는 정시모집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의대의 경우 최상위권 모집단위이고 또 높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요구한다. 수시모집 의대 증원은 곧 수능 고득점자가 수시모집으로 먼저 합격하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뜻이다. 따라서 정시모집 합격선 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

의대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보면, 4개 영역 등급 합 5 혹은 3개 영역 등급 합 3-4 수준으로 매우 높다. 1등급을 2-3개 확보하고 나머지는 2등급을 받아야 하는 수준이다. 가장 낮은 수준의 수능 최저학력기준도 4개 영역 2등급, 4개 영역 등급 합 6-7 수준으로 정시 합격을 위한 수능 성적보다는 낮지만 수시 최저학력기준으로서는 결코 낮지 않다.

2025학년도 의대 교과 전형 수능 최저학력기준

수능 최저	해당 대학	수능 최저	해당 대학
4개 등급 합	가톨릭대, 고려대, 영남대, 을지대, 전북대	3	가천대, 계명대(일반), 인하대
	동아대, 순천향대, 울지대(지역), 전북대(지역)	3개 등급 합	가톨릭관동대, 건양대, 경상국립대, 경희대, 계명대(면접), 고신대, 대구가 톨릭대, 동국대(wise), 충남대, 충북대
		4	강원대, 건양대(지역), 연세대, 원광대(지역), 조선대, 충북대(지역)
		5	
4개	2등급 인제대	6	강원대(지역), 경상국립대(지역)

※ 세부 반영 영역 등 자세한 사항은 모집요강 참고.

의대뿐만 아니라 최상위권 대학에서도 올해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신설한 대학이 많아졌다. 주요 상위권 대학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연세대 추천형, 고려대 논술, 한양대 교과 및 종합 추천형, 서울시립대 종합 서류형 등이 있다. 특히 고려대 논술 전형의 경우 4개 영역 등급 합 8, 경영학과는 4개 영역 등급 합 5로 매우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따라서 수능 고득점자들이 기존에 비해 최상위 대학에 수시로 더욱 많이 합격할 것으로 보인다.

2025학년도 주요 대학

수능 최저학력기준 신설 대학/전형

대학	유형	전형	수능 최저학력기준
연세대	교과	추천형	인문: 2개 영역 등급 합 4(+영어 3등급) 자연: 2개 영역 등급 합 5(+영어 3등급) 의약학: 2개 영역 1등급(+영어 3등급)
		고려대	논술
한양대	교과	추천형	3개 영역 등급 합 7
		종합	추천형
서울 시립대	종합	종합II (서류형)	2개 영역 등급 합 5(경영 미적용)

※ 세부 반영 영역 등 자세한 사항은 모집요강 참고.

정시 이월 인원, n수생 지원 경쟁 등 합격선 변동 체크해야

의대 증원 이슈로 2025학년도 입시의 전체적인 합격선은 하락할 것으로 당초부터 예상됐다. 2025학년도 의대는 약 1500명이 증원되는데 이는 자연계열 기준 1개 대학의 선발 인원과 비슷한 규모이다. 단순히 생각했을 때도 같은 백분위 점수일 때 예년에 비해 1개 대학 정도를 레벨업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합격선 하락폭은 여러 가지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측해야만 한다. 우선 수시모집에서 미등록한 인원이 정시모집으로 이월되는 인원을 잘 살펴봐야 한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올해는 수시모집을 적극 활용하는 학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월 인원은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n수생이 이번 수능에 역대 최다 응시했는데 수능 고득점자 가운데 n수생이 많기 때문에 정시모집 경쟁은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증가한 n수생 중에는 이미 의학 계열 및 최상위권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많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현재 자신이 재학 중인 대학보다 상향 대학에 합격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상향 지원하는 경향이 강할 전망이다. 이에 자신의 점수로 합격 가능한 대학보다 높은 대학에 지원하는 허수 지원자도 상당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경쟁률은 높지만 실질 경쟁률은 크게 하락할 수 있다. 따라서 경쟁률이 너무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철저한 분석과 세밀한 전략을 통해 지원 대학을 결정해야 한다.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장



남윤곤 소장의
대입 완전정복

보고 먹고 듣고 ... 풍성한 성탄절 되세요

연말의 설렘이 가득한 요즘, 전 세계인의 축제 크리스마스가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Z세대는 파티를 대어, 음악 앱 연말 결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말 분위기를 즐기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화려한 미디어 파사드와 각종 어드벤처 캘린더까지 볼거리, 즐길거리가 등장해 10대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홈파티족의 아늑한 연말나기

최근 Z세대 사이에서 연말을 맞아 파티룸을 대어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늘어난 '홈파티족'은 앤데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고물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외식, 숙박 등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도 지인들과 조용히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점 때문입니다. 공간대여 서비스를 통해 파티룸을 예약하고, 맛있는 음식과 함께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준비해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있습니다. 외식업계에서는 이러한 홈파티족을 겨냥한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속속 선보이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와 케이크 하면 투썸플레이스의 '스트로베리 초코 생크림 케이크'(스초생)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스초생은 몇 년째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Z세대 연말 놀이터



음악 앱으로 즐기는 연말 결산

음악 스트리밍 앱이 제공하는 연말 결산 콘텐츠도 Z세대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음악 앱 스포티파이에서는 'Wrapped 연말결산'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사용자가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노래, 청취 횟수, 음악 취향에 따른 성격 유형 등을 알려줍니다. 특히 음악을 가장 오래 들었던 날, 월별 나의 음악 무드 변천사는 사용자의 감정 변화가 온전히 반영된다는 점에서 인상적이라는 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Z세대는 이렇게 얻은 취향 정보를 인스타그램, 스레드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활발히 공유하며 친구들과 결과를 비교하고 자신의 음악 취향을 자랑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백화점의 크리스마스 테마

연말이면 빼놓을 수 없는 명소인 백화점의 미디어 파사드 역시 크리스마스 시즌을 더욱 빛내고 있습니다. 신세계백화점과 롯데백화점은 올해도 크리스마스 테마로 외벽을 장식하며 Z세대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신세계백화점 본점은 2021년 외벽에 광고 대신 전구 40만개를 추가하면서 독특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연출해 이목을 끌었는데요. 올해도 크리스마스 영상으로 외벽을 가득 채우며 화려한 미디어 파사드를 선보였습니다. 올해는 특히 삼성전자와 협력해 플리커 현상을 최소화한 초대형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해 한층 더 생생하고 선명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지난달 1일부터 열흘간 지난해보다 59% 증가한 20만명의 방문객이 몰린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의 '더현대 서울'은 올해 크리스마스 테마로 '움직이는 대극장 (Le Grand Theatre)'을 실내 공간에 선보였습니다. 아기 곰이 최고의 쇼를 펼치는 대극장을 찾기 위해 열기구를 타고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로, 헬륨가스를 넣은 대형 열기구 모양의 에어별론을 곳곳에 띄워 유럽의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매일이 선물, 어드벤처 캘린더

어드벤처 캘린더는 Z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또 다른 크리스마스 아이템입니다. 어드벤처 캘린더는 12월 1일부터 크리스마스인 24일까지 매일 하나씩 열어볼 수 있는 문이나 상자가 있는 형태로 제작되는데 그 안에는 초콜릿이나 간식, 장식품, 메시지 등이 하나씩 들어 있습니다. 이 달력은 저렴한 비용으로 오랜 기간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연말 분위기를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 어드벤처 캘린더는 초콜릿이나 쿠키 등 간식을 담은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올리브영, 록시땅, 딥디크 같은 뷰티 브랜드에서도 화장품이나 뷰티 제품을 담은 어드벤처 캘린더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스타벅스와 손잡고 어드벤처 캘린더를 출시했습니다. 캘린더 안에는 올 한 해 아모레몰에서 사랑받은 베스트셀러 제품과 스타벅스 미니 파우치백 등을 담았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여러분은 누구와 어떻게 소중한 시간을 보낼 예정인가요?

박세윤 인턴기자

사도광산에 어려있는 한국인의恨



쉽게 풀어 쓰는 시사뉴스

일본 측의 무성의한 태도로 반쪽짜리로 전락한 사도광산 추도식을 둘러싸고 '외교 참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7월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한국에 추도식 개최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지난달 사도섬에서 추도식이 열렸지만, 일본이 극우 인사를 정부 대표로 내세우고 추도사에도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강제동원이 담기지 않는 등 일본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한 한국 정부가 불참하면서 반쪽짜리 행사가 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한국의 추도식 불참에 대해 "유감"이라며 행사 파행을 한국 책임으로 돌리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 정부 역시 추도식과 관련해 일본이 보여준 태도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Q. 사도광산이란.

사도섬은 일본 니가타현 북서쪽에 있는 섬입니다. 사도광산이란 이 사도섬 전반을 아우르는 에도시대 일본 최대 금광입니다. 3년 전에 최소 1141명의 조선인이 사도광산에서 노역을 했다는 일본 정부의 공식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일본 시민단체 '강제동원 진상규명 네트워크'가 법무성의 지역 사무소인 니가타지방법무국 공문서에 '사도광산에서 일한 조선인 1141명에게 미지급된 임금 23만1059엔59전이 공탁됐다'는 기록이 있었다고 밝힌 것인데요.

일본 시민단체 회장은 "사도광산에 최소 1141명의 조선인이 징용당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밝혔습니다. 동원된 조선 노동자들이 강제로 노동을 착취당했다는 사실과 더불어 일본 당국이 1959년 5월 미지불된 노동자들의 임금을 국고로 편입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Q. 사도광산, 14년 만에 유네스코 등재됐는데.

일본은 2010년부터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힘써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 반대로 등재가 보류돼왔는데요. 유네스코에는 '다른 회원국이 반대하면 해결될 때까지 심사를 무기한 중단'하는 제도가 있어 우리 정부가 반대하면 등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해 7월 일본은 14년 만에 우리 정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에 설치돼 있는 금 채굴 과정을 묘사한 인형 조형물들.

부의 (조건부) 동의를 얻어냈고, 사도광산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전체 역사를 사도광산 현장에 반영하라는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와 권고와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을 일본이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전제로 등재 결정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Q. 일본 정부는 끝까지 조선인 노동자 강제동원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한국 외교부가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에 동의하는데 조건으로 내건 것은 △일본의 강제동원 역사를 알리는 전시를 유적 현장에 설치 △착취당한 조선인 노동자를 기리는 추도식 개최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지만 조건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본 측에서 '조선인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일본 대사는 "처음엔 모집, 다음엔 관 알선으로 조선총독부의 관여하에 실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시가 진행 중인 박물관에도 '강제동원' 이야기가 조금도 담기지 않았습다.

일본 정부가 추도식에 2022년 아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전력이 있는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을 보내기로 하는 등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자, 한국 정부는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장해린 인턴기자



제4회 Wonderchild
창의발명 경진대회

너의 아이디어를 펼쳐봐

AI·로봇 등 첨단분야 미래과학 인재 발굴

매일경제와 MBN이 GIA 마이크로 스쿨과 협력해 '제4회 원더차일드(WONDERCHILD) 창의발명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보안(딥페이크 등), 로봇, 모빌리티, 바이오 등 총 6가지 첨단 분야에서 미래의 과학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 참가 자격은 초·중·고교 재학생 및 동일 연령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올해부터는 유치부도 새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참가 신청은 2025년 1월 20일까지 진행되며, 개인 또는 2인 팀으로 지원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선택한 분야에서 아이디어의 창의성, 사회적 영향력, 실용성 및 경제성 등을 평가받아 예선을 통과

하게 된다. 본선에서는 시제품 평가, 발표 능력, 아이디어 적합성,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이번 대회는 초등학교 저학년부, 고학년부, 중학생부, 고등학생부로 나뉘어 시상이 이루어지며 부문별 대상 수상자에게는 최고 100만원의 상금과 상패가 수여된다.

원더차일드 창의발명대회 운영 관계자는 "미래 사회를 주도할 창의적 인재들이 이번 대회를 통해 문제 해결 능력과 독창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대회가 차세대 과학 인재 양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자세한 대회 내용과 신청 방법은 원더차일드 공식 홈페이지(wonderchild.c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운영 사무국(02-2000-5469)으로 하면 된다.



전동 키포드 안전대책 세워야

경안중학교 3학년 박지우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전기를 이용해 움직이는 저속의 소형 1인용 운송수단으로, ‘퍼스널 모빌리티’라고도 한다. 대표적인 예로 전동 키포드가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PM 이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 키포드는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해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4년간 경남 도내에서 발생한 237건의 PM 교통사고 중 10대 청소년의 사고가 26.6%를 차지했다. 느슨한 규제 때문에 면허를 등록하지 않아도 운전할 수 있어 많은 청소년이 PM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PM의 교통법규 위반 증가도 문제다. 대부분의 PM 이용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탑승한다. PM 불법 주행으로 적발된 건수는 2021년 총 1445건에서 지난해 3118건으로 2.7배 이상 급증했는데, 이 중 안전모 미착용(88.6%)이 가장 높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문제가 있다. 인도, 차도를 가리지 않고 전동 키포드들이 세워져 있고 이러한 키포드 때문에 통행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편리한 PM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 이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질서인식을 높여야 한다.



뉴진스 사태, K팝 개선할 기회

광남중학교 2학년 김수민

K팝 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나가 10월 1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한다고 밝혔을 때, 많은 이의 관심이 집중됐다. 유명 연예인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드문 일이기 때문이다. 국정감사는 연예계를 비롯 여러 이슈가 논의되는 곳이다. 현재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그 규모와 영향력에 걸맞은 법적·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 특히 연예인들의 긴 근로 시간과 열악한 근로 환경 등은 오랜 시간 동안 문제로 지적돼 왔지만 실제로는 큰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정감사는 단순히 정부의 예산을 점검하는 자리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각종 사회적·산업적 문제를 공론화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중요한 기회다. 연예인들이 국정감사와 같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연예계가 단순히 영리를 추구하는 산업에 그치지 않고, 공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중요한 분야임을 인식시킨다.

따라서 연예인들이 공적으로 사회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하나의 국정감사 출석 역시 K팝 산업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하나의 출석이 연예계의 현실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바다.



‘정품 위협’ 이커머스 규제를

태전중학교 2학년 손서운

중국의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인 알리, 테무, 쉬인 등의 국내 제품 위조 문제가 심해지고 있다. 이들은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전 세계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국내 제품을 무단으로 복제하는 경우가 빈번해 국내 제조업체의 경제적 피해가 커지고 있다.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에서는 제품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하거나, 유사한 형태로 변형해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이들은 제조와 유통을 온라인에서 직접 처리하므로 물류비용을 대폭 낮출 수 있고, 낮은 가격은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지식재산권(IP) 침해다. 국내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피해를 크게 보고 있으며, 이들의 차별화 전략이 무력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 민첩한 대응은 매우 어렵다.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빠른 속도로 유통되지만, 법적 대응을 하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 내 규제도 국내와 차이가 있어, 지식재산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

제품 위조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고, 이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 존중받아야 할 생명의 가치

성보경영고 1학년 김나경

요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국가 차원에서도 다양한 지원 제도를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사회 한편에는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사람들 역시 존재한다. 특히 청소년들이 호기심으로 성관계를 해 어린 나이에 임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고당엄빠’라는 TV 프로그램이 생겨나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끌 정도다. 2021년 낙태죄가 폐지됐지만 낙태에 대한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나는 낙태에 대해 반대한다. 첫째, 생명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낙태는 생명의 가치를 경시하는 행위다. 임신 중인 태아는 이미 성장 중인 생명이다. 임신 중절을 허용하는 것은 한 생명을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둘째, 종교·윤리적 이유다. 종교나 윤리적 관점에서 생명은 신성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낙태는 종교나 윤리적 가치에 어긋날 수 있으며, 이러한 가치 역시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낙태를 대체할 수 있는 선택지가 존재한다. 낙태를 하지 않고 입양 등의 선택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국가 차원에서도 뜻하지 않은 임신을 한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여성들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여러 가지 옵션을 고려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공인번호 : 기획재정부 제2021-201호

등록번호 : 2012-0277호

틴매일 경제 · 금융이해력인증시험 TEST

2025년 시험일정

50회
05.2451회
09.2752회
11.29

자격명 : 경제금융이해력인증시험(틴매일TEST) | 자격의 종류 : 국가공인민간자격(A+,A,B) / 등록민간자격(C,D)
 응시료 : 2만원 | 환불규정 : 정가접수 마감일까지 환불 신청시 응시료 전액 환불(송금수수료 제외).정기접수 마감일 이후 환불 불가
 발급기관 : 매일경제신문사 | 대표자 : 장대환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90(매경미디어센터)
 연락처 : 02-2000-2469 | 홈페이지 : <http://mktest.org> | 이메일 : mktest@mk.co.kr